봉축단상

# 가고 옴 없는 거룩한 님이여



그림 · 강병호




도정 스님
〈해인〉 편집장, 시인


**佛紀, 탄신일이 아닌 열반일을 기준해**
**반니원경 등엔 탄신 · 정각 · 열반일 같아**
**정녕 슬프고도 아름다운 승화의 완성**
**가셨어도 보내지 못한 그 자취 기린다**

불기2563년,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는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 이다. 연등회는 동국대 운동장에서 어울림 마당이 펼쳐지고, 각계각층 유명 인사들의 아기부처 관욕의식을 봉행하면서 시작됐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연등회 연등행렬은 의장대의 화려한 의장행렬을 필두로 예년과 같이 서울 동국대 운동장에서 출발해 동대문을 거쳐 조계사까지 종로 일대에서 진행됐다. 10만 연등의 물결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30만여 명의 내외국인이 연등행렬에 함께 동참하는 장관을 연출됐다. 연등행렬은 종파와 사찰을 초월해 하늘에서 하강하는 천녀상, 사천왕상, 보살상, 애기부처님상, 용, 탑, 코끼리, 색색들이 연꽃 등 온갖 종류의 거대한 등을 앞세우고, 손에 손 청사초롱 불 밝히며 부처님오신날을 세계인의 축제로 만들었다.

연등행렬의 끝 모를 인파에 차량도 멈춰서고 시간도 잊어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다. 서울의 중심 거리는 갠지스 강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인파가 켠 연등의 거대한 물결이 출렁출렁 도로를 따라 넘쳐흘렀다. 너와 내가 모두 법계의 꽃송이 되어 화엄의 바다를 장엄하였으니 세계일화(世界一花)의 부처님 마음이었다.

내가 사는 시골에서도 사찰로 들어가는 마을 어귀마다 가로수에서 전봇대로 이어진 색색의 연등이 걸려 부처님오신날이 불교 최대의 명절임을 확인시켜주었다. 시골 장터 방앗간도 쑥인절미를 뽑느라 불자들이 북새통이었다. 초파일이면 들에 쑥이 제법 커서는 낫으로 베어다 연한 잎만 훑고 억센 줄기는 골라낸 뒤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서 따로 담고, 떡쌀은 찹쌀에 멥쌀을 조금 섞어 방앗간에 가져가면 쑥인절미를 뽑아준다.

시골에서는 큰 대야에 통째로 떡을 가져와 절에서 콩고물을 묻혀 손으로 일일이 비벼 조막만하게 인절미를 빚는다. 불자들의 정성도 정성이지만 수십 년 절에 오간 시골 할매들 손맛이야 방앗간이 흉내 낼 수 없으니, 말캉한 인절미를 하나만 입에 넣어도 마음은 푸근해지고 속은 금방 든든해진다. 하여 할매들은 스스로 만든 고 인절미 맛에 반해서 아들네, 딸네 거기다 손주들 몫까지 등을 다니 비좁은 법당은 훈기로 가득할밖에. 주지 스님은 오랜만에 복작거리는 법당 안에서 어깨가 으쓱할밖에.

나는 인가도 없고 차량 통행도 없는 시골 산속 움막에 앉아 생각하였다. 이제 갓 새잎을 달고 마음껏 푸르를 준비 중인 5월의 나무와 나무 사이에 등줄을 걸고 비닐 연등이라도 내걸어야 하나? 어둠에 덮인 먼 산 너머 고라니가 한 번씩 안부나 묻거늘 뉘가 오실까 하여 밖에 등을 다나 자문해 보는 것이다.

마을은 멀고, 버스도 없어 유모차나 끌고 다니는 허리 굽은 할매들이 움막 법당에 찾아올 리도 없었다. 멀리 도시에서 인연되는 몇몇 불자님들이 안부 차 법당에 등을 달아 줄 뿐이다. 그리고 "부처님오신날인데 별고 없으시냐"고 묻는다.

나는 부처님오신날에 사람은 아니와도 밭두렁에 제멋대로 자라는 머윗대를 꺾어서는 삶아 냉동실에 넣어둬야 한다. 장화 신고 산으로 올라가서는 취나물도 뜯어야 하고, 오가피순도 따야하고, 고사리도 꺾어 솥뚜껑에서 눈물 나도록 끓여 찬물에 헹궈 초파일 나물로 쓸 준비도 마쳐야 한다.

그래, 부처님오신날이구나. 오래도록 기다린 님, 오매불망 그리던 그 님이 오셨구나. 오셨다는 그분은 그토록 눈물겹게 기다리던 님, 당신 아니면 정녕 의미 없다던 그이셨구나. 그런데, 오셨다던 그님은 국가와 국가의 전쟁, 지역과 지역의 분쟁, 반목과 질시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줄 그분이셨던가.

착취의 기아와 기근으로 인한 아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줄 그분이셨던가. 눈 멀어 처량한 신세 캄캄한 세상에 빛을 주실 그분이셨던가. 앉은뱅이 걷고, 뛰지 못하는 설움 가시게 할 그분이셨던가. 의지 없는 외로운 고아 신세 따뜻이 보듬어 주실 부모 같은 그분이셨던가. 폐병을 낫게 하고 암세포 말끔히 씻어 줄 의술의 대가 그분이셨던가. 집 없는 설움, 번듯한 직업 없는 나그네 설움 가시게 할 억만장자 그분이셨던가. 가난해서 학대받고 못 배워서 천대받던 평생 한을 단박에 씻어 줄 절대 권력의 그분이셨던가. 홀아비, 과부, 독거인의 외롭고 서러운 사정 다 해결해 줄 인연성취 그분이셨던가. 멀리 떠난 자식 다시 보고 효도 못한 부모님 극락으로 인도하실 전지전능 그분이셨던가.

부처님오신날 연등 소원지마다 소원성취, 취업성취, 건강발원, 사업번창….

부처님 모셔 놓은 불단 앞에 등줄을 치고, 색색으로 한지 연등을 달아 알전구 넣고는 전깃불을 밝힌 뒤 그 아래 앉아 곰곰이 생각하였다. 내게도 그리움은 있었고, 보고픈 이도 있었고, 사모하던 이도 있었구나. 내게도 어릴 때부터 나이 따라 변해가던 소원들이 있었구나. 채워도 채워지지 않던 그 바닥없는 욕심도 있었구나. 만나고 싶은 이도 있었고 놓치고 싶지 않은 이도 있었구나. 오르고 싶은 곳도 있었고 떨쳐버리고 싶은 것도 있었구나.

그렇다면, 오셨다던 그님은 존안을 먼발치에서 뵙기만 해도, 손만 한번 잡아줘도 내 허허로움 가득 채워지는 불세출의 그이였더란 말인가?

아니다. 아니다. 오셨다던 우리 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풀 먹인 장삼자락 휘날리던 그이 아니었으며, 겹겹이 솜털 누빈 옷, 조각천으로 멋 부린 승복 입은 그이 아니었어라. 임금처럼 화려하게 군대를 사열하고 어가 타고 오신 그분이 아니었어라. 구름을 불러서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사람 마음 유혹해 이익 취하는 그이가 아니었어라. 시체 싼 고름 묻은 천 냇가에 빨아 입고, 쪽박 같은 그릇하나 달랑 들고, 거름뱅이 마냥 맨발로 탁발하러 다니시던 그이 아니셨던가. 누군가에게 미움 사 코끼리에게 짓밟혀 죽임을 당할 뻔했던 이였고, 음탕한 지도자라 모함당한 이였고, 늙은 몸 누일 곳 없어 사라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신 이였어라. 몸 아프고, 배고프고, 목마른 그 이였어라.

불기(佛紀)는 기실 부처님 탄신일이 아니라 부처님이 열반한 날을 기준으로 하였다. 고해의 바다라고 명명하셨던 이 사바세계에서 80평생 사셨던 한 늙은 성자, 혈변을 흘리며 "아난아, 목마르다"고 힘없이 말씀하시며 휘청걸음으로 도달한 사라수 아래의 그 영면의 날이다. 그래서 가신 날을 기준으로 오늘날 '부처님오신날' 이다.

〈반니원경(般泥洹經)〉〈수업본기경(修業本起經)〉에는 "부처님은 사월 초파일에 탄생하여, 사월 초파일에 출가했으며, 사월 초파일에 정각을 얻어 성도하고, 사월 초파일에 입적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가신 날을 오신 날의 기준을 삼다니! 정녕, 슬프고도 아름다운 승화의 완성이다.

가셨어도 보내지 못한 그 거룩한 분의 자취를 우리는 기어코 오신 해로 여기며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 외치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짐 하나 새로 하였다. 가신 날이면 어떻고 오신 날인들 어떠리. 우리 마음에 그분을 영접한 날이 곧 오신 날이거니와 나도 흥겨운 마음으로 연등을 걸어야 마땅하지 않으랴.

社說

## 어린이가 불교의 미래다

불기2563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가 5월 4일과 5일 펼쳐졌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어린이'를 주제로 서울 종로 일대에서 불기2563년 연등회와 전통문화마당을 진행했다. 올해 연등회에는 약 40만명의 시민들이 동참해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봉축했다.

올해는 특히 연등회 전통문화마당이 열린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아이들 중심의 다양한 행사가 눈길을 끌었다. 가족이 함께하는 명상,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과 포토존 등 아이들 위주의 행사가 이어졌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전통문화를 즐기는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불교에 있어서 어린이 불자들을 양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어린이 포교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매년 줄어드는 어린이법회부터 불자지도자 수까지 10년 전 수치와 비교해도 포교가 축소되고 있음이 확연하다.

이제는 고령의 여성불자 중심의 기도문화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중심의 체험문화로 사찰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여러 세대가 함께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노력하면 이뤄진다. 양산 통도사의 경우 지난해 6월만 해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빼면 어린이법회 참석 아동은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사찰 측의 계층법회 및 가족법회 활성화를 통해 이제 50여 명의 어린이들이 법회에 나오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의 진정한 의미는 이 땅에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에게 스스로 마음 닦는 법을 알게 하고, 더 나아가 이타행을 통한 정토 구현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이런 전법의지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어린이불자는 불교의 미래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나씩 사찰의 문화, 풍토를 바꿔가는 일을 시작하자.

## 천은사 입장료 폐지에 부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구례 천은사 문화재입장료가 32년만에 폐지됐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와 천은사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4월 29일 환경부 · 문화재청 등 8개 기관과 함께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날부터 입장료를 폐지키로 합의했다.

그간 천은사 문화재입장료 문제는 사찰 문화재입장료 갈등의 대표 사례로 여겨져 왔다. 특히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하면서 더욱 세간의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한국의 국립공원 정책은 애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천은사의 경우 1960년대 후반 당시 군사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리산국립공원을 지정하며 사찰 소유 토지를 포함시켰고, 1987년 전두환 정권은 88올림픽 관광특수를 위해 지리산 관광도로(861번 지방도)를 개통했다. 이후 정부는 매표소를 설치해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구역입장료를 함께 징수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공원 정책으로 시민들의 비판은 모두 사찰에게 돌아갔다.

지난한 갈등과 논의 끝에 결국 천은사는 산문을 온전히 국민에게 돌려줬다. 물론 해결할 부분도 남았다. 사찰의 운영기반 조성과 탐방로 개발 등 천은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들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지금도 갈등 중인 국립공원 사찰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한다. 애초 입장료 갈등은 마음대로 사찰 토지들을 공원에 편입시킨 정부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책임있는 해결을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